제9차 WTO 각료회의 각료연설문(국문)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연설문(국문)

- 2013.12.4(水) 오후, 제9차 WTO 각료회의(인도네시아 발리 개최)

각료회의 의장, 사무총장, 각국 장관, 대사 및 귀빈 여러분,

금번 제9차 WTO 각료회의 주최국인 인도네시아 정부에 한국 대표단을 대신하여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예멘 공화국이 160번째 WTO 회원국으로 공식 가입하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자통상체제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경제 성장과 발전의 토대이며, 2008년 금융위기 사태와 그 여파 속에서 글로벌 경제가 더욱 잘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됐습니다. 특히, WTO는 보호주의를 효과적으로 저지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가 설립된 이래 약 20여년간, 글로벌 무역 협정이 활발히 타결되지 못한 점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실제로, 다자주의는 중대한 기로에 있고, 가장 성공적인 다자기구인 WTO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세계는 금번 각료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발리에서의 성공은 무역이 더 큰 번영을 위한 중요한 동력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입니다. 만일 이곳에서 우리가 실패한다면, 그에 따른 결과는 무거울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각국을 대표하는 무역협상가들이 발리 패키지를 완료하기 위해 지대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사무총장과 협상그룹 의장들의 통찰력 있는 리더십 덕분에 우리는 최종 지점에 매우 가까이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선을 건너기 위해, 우리는 정치적 의지를 모아,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해 낸 아제베도 사무총장을 전폭 지지해야 합니다. 양보의 정신 아래, 현재 논의 사항을 구체적 성과로 이끌어내는 것은 우리들에게 달렸습니다.

무역원활화 협정을 타결한다면, 무역에 관련된 모든 과정을 더 단순화하고 매끄럽게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입니다. 농업 이슈 일부에서의 성과는 작을지라도, 회원국들의 민감성을 해결하면서도 점진적인 개혁을 확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또한, 최빈개도국(LDC) 패키지와 모니터링 메커니즘에서의 합의는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도국들이 자국의 발전 전략에서 가능한 무역 기회들을 창출할 수 있는 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WTO가 무역 협상의 최고의 장(場)으로서 여전히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발리 패키지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도하개발어젠다(DDA) 외에도, 빠른 시일 내에 정보기술협정(ITA)의 품목 확대 협상에서 상업적으로 의미 있고 균형된 성과가 도출되길 기대합니다.

발리에서 어떠한 성과를 거두든지, 현재 진행 중인 협상들을 진전시키기 위한 초석으로서 그러한 성과들을 활용해 나가야 합니다. 동시에, 다자무역 규범이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WTO 어젠다에 새로운 21세기형 이슈들을 통합시키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금번 제9차 각료회의에서 미래 지향적인 '발리 이후(post-Bali) 작업계획'에 대한 지침도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발리 패키지는 이곳 발리에서, 이번 주에 반드시 타결돼야만 합니다. 또한 그 결과는 세 개의 주요 분야(무역원활화, 무역 일부, 개발/LDC 이슈)를 모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모두의 혜택을 위해 다자통상체제를 보호하고 강화하는데 있어 WTO 모든 회원국들과 변함없이 협력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세계무역기구과 임미정사무관 (2110-4503)